

하이산과 <몽골신문>*

이평래**

<목 차>

1. 문제 제기
2. <몽골신문> 편집인에 대한 몽골국 학자들의 견해
3. <몽골신문> 편집인에 대한 내몽골 학자들의 견해
4. 맺음말

1. 문제 제기

핀란드의 저명한 언어학자 람스테트(Gustaf John Ramstedt, 1873-1950)는 모두 세 차례 몽골을 방문하였다. 1898년 처음 몽골에 온 그는 1909년에 두 번째로 몽골을 방문하고, 3년 후인 1912년에 다시 몽골을 찾았다. 방문 목적은 물론 학술조사를 위해서였다. 그가 언어학자였기 때문에 언어조사에 중점이 두어졌을 터이지만 구전자료 수집이나 튀르크 비문과 위구르 비문조사 등 유적조사도 병행하였다. 예를 들면 그는 오늘날 몽골국 북부 셀렝게 아이막 사이한 슝 히르기스 계곡에서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위구르 비문을 새로 발견하여 학계에 보고하고,¹⁾ 부랴트몽골인 잠차라노(Ts. J. Jamtsarano,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01023936).

** 한국의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1) 본 비문은 <셀렝게 비문>, <시네 우수 비문>, <마연철(磨延喙) 비문>, <우르구투 비문>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Л. Болд(1990), *БНМАУ-ын нутаг дахь хадны бичээс(Түрэг бичгийн дурсгал)*,

1880-1942)의 부탁을 받고는 위구르사²⁾를 집필하기도 하였다. 람스테트는 학술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조사를 직접 도운 몽골 일꾼과 몽골어 선생 외에도, 몽골 거주 외국인 및 현지 지배층과 일반인 등 여러 사람들과 폭넓게 교류하였다. 특히 몽골 왕公들과는 학술 문제 뿐 아니라 당시 몽골의 정치와 사회상황 그리고 몽골의 앞날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1898년-1900년에 이루어진 첫 번째 몽골 방문 때 그는 1911년 몽골 독립 선언의 주도자 중 한 사람인 親王 한드도르지(Chin Wang Khanddorj, 1869-1915)와 교류하고, 1909년 두 번째 방문 때는 한드도르지의 소개로 역시 1911년 독립선언의 주도자 중 한 사람으로 내몽골 출신인 하이산 공(Khaisan gūn, 1857-1917)을 만났다. 람스테트는 1911년 8월 청조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하여 몽골 대표단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했을 때³⁾와 1912년 그가 마지막으로 몽골을 방문했을 때도 이들을 만났다. 또한 하이산 및 1911년 독립선언의 또 다른 주역인 다람 체렌치메드(Da Lam Tserenchimed, 1872-1914) 등과는 그 후에도 서신을 통하여 교류를 이어갔다.⁴⁾ 람스테트와 몽골 독립 주도세력과의 교류가 1911년 독립선언과 그 후 신정부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⁵⁾ 본고와 관련하여 필자가 람스테트에 주목하는 것은 그와 하이산의 만남 그리고 나중에 그가 하이산에 대하여 남긴 기록이다.

Улаанбаатар: Улсы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pp.61-70.; Ablet Kamalov(2003), "The Moghon Shine Usu Inscription as the Earliest Uighur Historical Annals", *Central Asiatic Journal* Vol. 47, No. 1, pp.77-90.; 정재훈(2005), 『위구르 유목제국사 744-840』, 서울: 문화과 지성사, 385-389쪽 등 참고. 비문의 발견 경위 등에 대해서는 게.이. 람스테트 지음, 고송무 뒤침(1986), 『일곱 차례 동방 여행』, 서울: 민음사, 191-197쪽에 상세하다.

- 2) 『위구르 민족의 간략한 역사(Uiγur ulus-un quriyanγui teūke)』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장구(2006), 「람스테트(G.J. Ramstedt)의 유목민족사 이해와 그 한계 - 『위구르 민족의 간략한 역사』의 전사와 번역을 중심으로 -」, 『중앙아시아연구』 11 참고.
- 3) 게.이. 람스테트 지음, 위의 책, 205-209쪽; М. Саруул-Эрдэнэ, Ж. Урангуа(2017), *Рамстедтын захидал бичиг*, Улаанбаатар: Сэлэнгэпрэсс, pp.16-17.
- 4) М. Саруул-Эрдэнэ, Ж. Урангуа(2017), 위의 책, pp.20-46.
- 5) Pentti Aalto(1973), G.J. Ramstedt and Mongoli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a Mongolica Tom I*(9) Fasc.1-17, pp.124-131.

람스테트의 여행기에 따르면 그가 두 번째로 우르가(Urga, 현재의 울란바타르)에 온 것은 1909년 5월 25일(그레고리력 6월 7일)이고, 도착 후 곧바로 학술조사에 나갔다가 다시 우르가로 돌아온 것은 10월 2일(그레고리력 10월 15일)이며, 그 후 그곳에서 두 달을 체류하였다. 그 때 그는 親王 한드도르지 등 몽골 지도자들과 그 무렵 몽골의 정치 및 사회상황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한드도르지가 람스테트에게 내몽골 출신의 하이산 공을 보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하이산이 당시 몽골의 정치 및 사회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하고 람스테트는 주로 그의 말을 경청하였다.⁶⁾ 람스테트는 이 때 하이산 공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훗날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증언을 남겼다.

카이산-깡(Khaisan-güng)은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르빈에서 몇 년 전에 첫번째 몽고 말 신문을 출판했다. 그는 몽고 말로 몽고 역사에 대해 몇 권의 책을 썼다. 그는 중국의 관리 시험에 합격했고, 중국 정치가이고 대신인 이홍장의 몽고 사람 비서로서 일했고, 끝내는 그가 모든 재산과 모든 부하들을 중국 사람에게 잃어서 러시아 측에게서 돈을 얻으려고 러시아 비밀 경찰 첩자 활동을 하겠다고 자원했다.⁷⁾(원문 그대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전후 문맥으로 미뤄보아 보통 사람이 아니라 는 뜻일 것이다. 나머지는 하이산의 경력에 관한 사항인데,⁸⁾ 이 중에서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그가 “하르빈에서 첫번째 몽고 말 신문”을 출판했다는 대목이다. “첫번째 몽고 말 신문”⁹⁾은 1909년-1918년 하

6) 게.이. 람스테트 지음, 위의 책, 185-203쪽.

7) 게.이. 람스테트 지음, 위의 책, 203쪽.

8) 하이산의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中見立夫(1976), 「ハイサンとオタイ-ボドろン政權における南モンゴル人」, 『東洋學報』 57(1・2); 樊明方(2005), 「海山與1911年外蒙古獨立」, 『中國邊疆史地研究』 15-4; 이평래(2011), 「1911년 몽골 독립과 하이산」, 『대동문화연구』 75 등을 참고.

9) 1908년 청조 예하의 吉林調查局에서 <蒙話報(Mongvul üstüg-ün bodurul)>라는 蒙漢合璧 잡지가 발행되기 때문에 <몽골신문>이 최초의 몽골어 정기간행물은 아니다. 20세기 초기 몽골과 현재의 중국

얼빈 소재 러시아의 東清鐵道(1911년 이후 中東鐵道) 관리 하에서 발행된 <몽골신문(Mongyul-un sonin bičig)>¹⁰⁾을 말한다. <몽골신문>은 그 명칭과는 다르게 1909년 창간 때부터 줄 곳 매 월에 2회 잡지 형태로 발행되다가 1912년 9월 25일부터 주간신문 형태로 바뀌었다. <몽골신문>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시기 델렉(G. Deleg)의 선구적인 연구¹¹⁾가 있고, 그 후 후흐바타르(Khökhbaatar), 투무르(Tömör, 忒莫勒), 보르지긴 부렌(Borjigin Büren, 布日額)¹²⁾ 등 주로 내몽골 출신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본지 간행의 연혁, 목적, 자료 현황 등 <몽골신문>에 관한 많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할 만큼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가장 큰 이유는 관심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신문 자료 자체가 몽골국, 내몽골,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것도 연구의 진행을 늦춘 이유 중 하나이다.

당연히 <몽골신문>과 관련한 많은 부분이 해명되지 않았고, 초보적 연구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 사이에 견해가 엇갈리는 문제도 있다. 그 중 하나가 본지의 편집인 또는 발행인¹³⁾에 관한 사항이다. 랍스테트의 증언처

영내에서 간행된 몽골어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Г. Дэлэг(1965), *Монгол тогтмол хэвлэлийн түүхэн тэмдэглэл*, Улаанбаатар: Улсын хэвлэлийн эрхлэх хороо.; フフバートル(2007), 「中國領内發行のモンゴル語定期刊行物—モンゴル語定期刊行の所蔵と研究の状況—」, 『学苑』 №. 799 등 참고.

10) 창간 당시 본지는 하얼빈에서 발행되는 漢語 신문인 <遠東報>와 함께 東清鐵道民政部 관리 하에 있던 遠東報館에서 발행되었고, <遠東報> 주필이 편집을 감독하였다. 『哈爾賓發行蒙古新聞二開スル件』(大正 3年 8月 17日, 哈爾賓總領事代理領事官補 川越, 外務大臣男爵加藤高明宛(外務省外交史料館),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レファレンスコード BO3040837700), p.2.

11) Г. Дэлэг, 위의 책, pp.37-63.

12) フフバートル(1995), 「モンゴル語定期刊行物史にみる言語問題——モンゴル語發展史及び内モンゴル言語問題の一端」(一橋大学大学院社会学研究科 博士課程後期単位修得論文.); フフバートル(2015), 「Mongyul-un sonin bičig(1909-1918)というモンゴル語定期刊行物—モンゴル語定期刊行物史における位置づけと所蔵状況—」, 『学苑』 №.892.; 忒莫勒(2009), 「關於清末民初哈爾濱的『蒙古新聞』」, 『內蒙古師範大學學報』(哲学社会科学版) 第38卷 第3期.; 忒莫勒編著(2010), 『內蒙古旧報刊考錄 1905-1949. 9』, 呼和浩特: 遠方出版社, pp.396-398.; ボルジギンブレン(布日額)(2012), 『『モンゴリンソニンビチグ』(1909-1919)の發行状況と論調—近代モンゴルの活字メディアとナショナリズムの萌芽—』, 『内陸アジア史研究』 第27號.

13) 연구자에 따라 하이산과 <몽골신문>의 관계를 편집인과 발행인 등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다. 또한 <몽골신문> 관련 자료에는 主筆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이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들을 하나하나 구분하지 않고 신문 간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럼 하이산이 정말 〈몽골신문〉의 발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어떤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그 동안 대다수 연구자들은 하이산이 하얼빈에 체류할 때 〈몽골신문〉의 편집인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연구자들은 자료의 부족을 근거로 이러한 통설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점에 착안하여 필자는 하이산이 정말 〈몽골신문〉의 편집 또는 발행에 관여했는지 어떤지를 기왕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고 한다.

필자가 이 문제에 천착하게 된 것은 〈몽골신문〉 자체에 대한 관심 외에도, 태어난 고향 내몽골 하르친우기[喀喇沁右旗]에서 하얼빈으로 이주하고, 그곳에서 다시 후레(Khüree, 현재의 울란바타르)로 거처를 옮겨 민족의 독립에 투신하고, 마지막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하이산의 인생 역정을 이해하는데 이 대목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즉 1911년 독립선언을 주도한 핵심 인물의 하나인 하이산의 이력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이 하얼빈에서의 생활인데, 본고는 바로 이 어두운 부분을 밝히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 수행된 것이다. 먼저 몽골국(몽골인민공화국 포함)에서의 연구를 살펴본 다음, 이어 내몽골 출신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는 순으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2. 〈몽골신문〉 편집인에 대한 몽골국 학자들의 견해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하이산이 하얼빈에서 〈몽골신문〉의 편집을 맡았다는 것을 처음 언급한 학자는 몽골 과학아카데미 원장을 역임한 역사학자 시렌데브(B. Shirendev, 1912-2001)이다. 그는 1963년 러시아어로 간행한 자신의 저서에서 1911년 “외몽골”의 반청투쟁에 적극 참가한 “내몽골” 사람의 하나로 하이산 공을 언급하고, 각주를 통하여 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하이산 공(Khaisan-gun)(은) 하얼빈 소재 東淸철도 관리부서에서 발행한 (세계) 유일의 몽골어 신문 <몽골신문>의 편집인(redaktor)(을 역임하였다).¹⁴⁾(괄호 안 필자 부기)

출판인(람스테트)과 편집인(시렌테브)으로 자구상의 차이가 있지만 하이산이 <몽골신문> 발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 점에서는 일치한다. 문제는 오래 전 잠스란(L. Jamsran)¹⁵⁾이 지적했듯이 시렌테브가 하이산을 <몽골신문>의 편집인을 역임했다고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이다. 따라서 그가 왜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가는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추론은 가능하다.

첫째 후흐바타르가 지적한대로 그가 람스테트의 여행기를 참고했을 수가 있다.¹⁶⁾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하이산과 <몽골신문>의 관련성을 언급한 것은 람스테트의 여행기가 처음이다. 물론 이러한 추론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람스테트의 『일곱 차례 동방 여행』은 1944년 초판이 나온 후 2판(1953년), 3판(1961년), 4판(1967년)이 연이어 나왔고, 1961년에 스웨덴어 번역이 나왔으며, 이것이 1978년에 영어로 번역되었다.¹⁷⁾ 시점 상으로 시렌테브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핀란드어 원전과 스웨덴어 번역본일텐데 그랬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그가 가장 손쉽게 구득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어로 된 자료였을 터이지만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까지 람스테트 여행기의 러시아어 번역본은 출판된 적이 없다. 또 하나의 추론은 그가 러시아인의 저술 속에서 이 내용을 보았을 수가 있다. <몽골신문>이 전적으로 東淸철도의 관리 하에서 발행되었기 때문에 당시 러시아 언론이나 보고서 등에 당해

14) Б. Ширендеб(1963), *Монголия на рубеже XIX-XX веков(История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Улан-Батор: Комитет по делам печати, pp.72-73.

15) Л. Жамсран(1992), *Монголын сэргэн мандалтын эхэн(1911-1913)*,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хэвтэлийн газар, p.146.

16) フフバートル, 앞의 2015년 논문, p.48.

17) 게.이. 람스테트 지음, 앞의 책, vi-vii쪽.

신문의 편집인이나 발행인 관련 내용이 소개되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시렌테브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를 참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한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시렌테브 이후 〈몽골신문〉의 편집인에 대하여 언급한 사람은 현대 몽골 언론학의 기틀을 세운 델렉(G. Deleg) 교수이다. 그는 20세기 몽골의 정기간행물의 역사를 다룬 자신의 저술에서 〈몽골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기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하얼빈의 〈몽골신문〉 발행자들(Erkheij baigsad) 중에는 내몽골 하르친기의 알마스-오치르 메렌(Almas-Ochir meeren), 하이산 公 등이 있었다. 그들은 만주의 식민 지배를 증오하고 독립한 통일 몽골국 설립을 바라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하얼빈 〈몽골신문〉 후기 발행자(Erkhelegch)로 아긴 부랴트(Agyn Buriad)의 체덴이시(Ts. Tsenden-Ish)가 있었다. 1911년 말 〈몽골신문〉의 편집과 교정작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니스렐 후레(Niislel khüree, 현재의 울란바타르)에서 애국 지식인 남스라이(남스라이자브)[B. Namsrai(Namsraijav), 남스라이(D. Namsrai), 달흐자브(Dalkhkav)] 등이 특별 계약을 맺고 하얼빈에 가서 근무하였다. (중략) 하얼빈 신문에서 근무한 몽골 관리들은 대부분 러시아어, 한어, 만주어, 일본어를 하는 높은 교양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니스렐 후레의 저명한 기자인 世襲公 바드라흐-바타르(Badrakh-Baatar), 보도(D. Bodoo), 체벤(J. Tseven)¹⁸ 등은 하얼빈의 〈몽골신문〉 발행에 처음부터 참여하였다.¹⁹⁾

약간 번잡하지만 〈몽골신문〉의 편집과 발행 및 기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로 창간에서 후대에 이르기까지 동 신문에 참여한 주요 인사를 파악하는

18) 앞에서 언급한 잠차라노(Ts. J. Jamtsarano)의 몽골식 이름이다.

19) Г. Дэлэг, 앞의 책, pp.57-58.

데 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다. 이 중에는 당대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도 있고 애매하거나 의심스런 내용도 있다. 예컨대 인용문에서 “후례의 애국 지식인”이라고 한 남스라이(남스라이자브)는 하얼빈 주재 일본영사관 보고서에 나오는 “1912년 11월 당시 후례에서 세무국 서기로 근무하다가 主筆로 초빙된 남스라이자브(那丹珠, 23-24세 청년)”²⁰⁾를 말한다. 물론 연도상의 차이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반대로 후호바타르가 지적한 대로 니스렐 후례의 바드라흐-바타르, 보도, 체벤 등이 처음부터 <몽골신문> 발행에 참여했다는 것은 의심스런 대목이다.²¹⁾ 같은 하얼빈 주재 일본영사관 보고서에 의하면 1912년 6월 내몽골 하르친 사람 울지(烏利吉)가 신임 주필로 부임한 이후 내몽골인을 기자 등에 임명해왔던 이전의 관행을 바꾸어 외몽골과 러시아인을 고급 기자로 임명하기 시작하였다.²²⁾ 따라서 만일 바드라흐-바타르, 보도, 체벤 등이 신문 발행에 참여했다면 1912년 6월 이후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바드라흐-바타르는 니스렐 후례에 주재하는 (당해) 신문의 기자 그룹을 이끌고 하얼빈 신문의 대표자 역할을 맡았다”²³⁾(괄호 안 필자 부기)고 하듯이 이들은 후례 등 “외몽골”에 주재하면서 취재하는 형태로 당해 신문의 발행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델렉 교수는 본 논문의 주 관심사인 하이산을 알마스-오치르와 더불어 <몽골신문>의 발행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상기한 시퀀데브를 인용한 것 외에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위에서 인용한 하얼빈 주재 일본영사관 보고에는 <몽골신문> 창간 때 “漢語와 만주어에 능통한 하르친기 몽골 사람 알마스-오치르를 주필, 2명의 하르친 사람을 기자”로 초빙했다²⁴⁾고 할뿐 하이산에 대한 언급은 없다.²⁵⁾ 물론 후술하는 것처럼 알마스-

20) 「哈爾賓發行蒙古新聞二開スル件」(大正 3年 8月 17日, p.4.

21) フフバートル, 2015년 논문, p.47.

22) 「哈爾賓發行蒙古新聞二開スル件」(大正 3年 8月 17日, pp.3-4.

23) Г. Дэлэг, 앞의 책, p.58.

24) “喀拉沁旗ノ蒙人ニシテ漢、滿語二通ゼル阿爾木薩鄂齊爾(漢名趙壽彭四十六年)ヲ聘セテ主筆トシ外二名ノ喀拉沁旗人ヲ記者トシ(下略)”. 「哈爾賓發行蒙古新聞二開スル件」(大正 3年 8月 17日, p.2.

25) 투무르 또한 일찍이 이 점을 지적한 적이 있다. 忒莫勒, 앞의 2009년 논문, p.67.

오치르와 하이산은 모두 하르친우기 출신의 지식인 관리로서 정치적 이유로 고향을 떠나 하얼빈에 정착하고, 1907년 함께 후레에 가서 청조로부터의 독립을 역설하는 등 정치적 지향점이 같은 동지 관계였다.²⁶⁾ 따라서 본지 창간 때 2명의 하르친 출신 기자 중 한 명이 하이산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을 하이산이 <몽골신문>의 편집인이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는 것 또한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현재 몽골 학자들이 따르고 있는 하이산이 <몽골신문>의 발행에 관여했다는 텔렉 교수의 설도 온전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 시기를 연구하는 후학들이 지금까지 언급한 시렌데브와 텔렉 교수의 설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몽골의 20세기 초기 민족해방운동사 분야의 대표적 연구자인 바트사이한(O. Batsaikhan) 등은 근년에 출간한 몽골근대사에서 50여 년 전에 쓴 텔렉 교수의 저술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²⁷⁾ 또한 오늘날 몽골국 언론학자들도 이를 그대로 답습하는 상황이다. 몽골국 언론학자 오드만다흐(M. Odmandakh)가 2020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몽골신문> 발행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하이산 공을 필두로 바드라흐-바타르, 보도, 체벤 등을 특기한 것이 그 한 사례이다.²⁸⁾ 이렇게 보면 1963년 시렌데브가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언급한 하이산의 <몽골신문> 편집인 설은 57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검증 없이 통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 때문인지 당장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마도 이 주제가 몽골 학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사항이 아닌 것이 1차적 이유일 것이다. 그러

26) Г. Навааннамжил(연도미상), *Gün Qayisan — u tuqai*, ШУА-ын Түүхийн хүрээлэнгийн гар бичмэлийн сан Ф-3, Д-1, ХН-1036, р.1: М. Масаржав/Эрхлэн хэвлүүлсэн З. Лонжид, О. Батсайхан(2015), *Монгол улсын шинэ түүх*,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Принтийнг, pp.17-18.

27) О. Батсайхан, З. Лонжид, С. Баатар, С. Амарсанаа(2018), *Монголын түүх(1911-2017)*,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Принтийнг, pp.140-141.

28) М. ОДМАНДАХ: ХЭДИЙ БҮХ ЗҮЙЛ ОНЛАЙН БОЛЖ БАЙГАА Ч ХАМГИЙН БОДИТОЙ ЭХ СУРВАЛЖ БОЛ ХЭВЛЭМЭЛ ХУУДАС БАЙНА(2020. 5. 20), <https://gereg.mn/news/53278>(2021. 1. 9 검색).

나 〈몽골신문〉이 현재의 몽골국 영토 밖인 하얼빈에서 간행되었을 뿐 아니라 제정러시아의 지원으로 러시아인의 지도하에서 간행되었고, 앞서 언급한 대로 자료 자체가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있다는 것도 관심 부재의 또 다른 이유일 것이다. 이는 후레에서 1913년 3월부터 간행된 〈새 거울이라는 글(Sine toli kemekü bičig)〉과 역시 후레에서 1915년 9월부터 간행된 〈니슬렐 후레 신문(Neiyslel küriyen-ü sonin bičig)〉 등 정기간행물이 지금도 몽골국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3. 〈몽골신문〉 편집인에 대한 내몽골 학자들의 견해

내몽골 연구자 중에서 맨 먼저 하이산과 〈몽골신문〉 편집인 관련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학자는 투무르이다. 그는 내몽골지치구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주로 근대 몽골의 지방문헌, 신문과 잡지, 도서 간행 관련 연구를 수행했는데 그 중 하나가 〈몽골신문〉에 관한 것이다. 그는 2009년에 발표한 논문과 2010년 저술²⁹⁾에서 중국에서의 〈몽골신문〉 연구사를 개관하고 창간 시기와 연혁, 인원 편성과 대우, 당해 신문의 평가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하였다. 투무르는 앞에서 인용한 하얼빈 주재 일본영사관 보고서라는 새로운 자료를 처음 발굴하여 〈몽골신문〉의 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하이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외국학자들이 근대 몽골족의 역사적 인물인 하이산을 〈몽골신문〉 초기 발행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 중국 학계에서는 자료와 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 이 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 그는 핀란드 학자 람스테트가 이 설의 최초의 주창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몽골신문〉 발행에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되는 하이산이 본지의 발행인을 가장 상세

29) 忒莫勒, 앞의 논문; 忒莫勒, 앞의 책.

하게 소개한 하얼빈 주재 일본영사관 보고서에 빠진 것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편집인 문제와 관련하여 투무르는 하이산이 하얼빈을 떠나 후례로 간 시기(1907년 혹은 1908년)³⁰와 하얼빈에서 〈몽골신문〉이 창간된 시기(1909년)의 차이를 거론하면서 통설, 즉 하이산이 본지의 편집인을 역임했다는 설은 원칙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투무르가 람스테트의 증언을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한 것도 아니다. 이에 대하여 그는 러시아인들이 東淸철도 관리국 기관지인 〈하얼빈신문(哈爾濱新聞)〉³¹에 몽골어 신문을 첨부하여 발행하려 계획하고 있다는 光緒 32년(1906) 9월 16일자 奉天蒙古各旗交涉局의 보고서³²에 주목하고, 이 보고서에 등장하는 몽골어 신문[蒙文報紙]을 곧 〈몽골신문〉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투무르는 본 보고서가 작성된 1906년 당시 하이산이 하얼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당시 러시아인들과 몽골인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몽골신문〉 발행 계획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람스테트의 증언도 여기에서 나왔을 수가 있다고 하였다.

정리하자면 투무르는 하얼빈 주재 일본영사관 보고서와 하이산이 후례로 간 시기에 근거하여 그가 〈몽골신문〉의 실제 발행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그는 奉天蒙古各旗交涉局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하

30) 앞선 논문(이평래, 앞의 논문, 208-209쪽)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이산이 1907년에 후례에 갔다는 것은 여러 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 투무르는 光緒 33년(1907) 11월 15일(음력) 이후에도 하이산이 하얼빈에 있었다는 한문 자료에 근거하여 그가 1908년 초(양력)에 후례에 갔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武莫勒, 앞의 2009년 논문, p.67), 후술하듯이 하이산은 1907년에 후례에 갔다가 곧바로 내몽골로 돌아오기 때문에 1906년 말에 그가 하얼빈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주지하듯이 그가 다시 후례로 간 것은 1909년이다.

31) 1903년 6월 23일 창간된 러시아어 신문으로 러시아어 공식명칭은 <하얼빈일보(Kharbinskii Vestnik)>이다. 郭宇春(2020), 「淺談俄羅斯文化在中東鐵路沿線的傳播」, 『西伯利亞研究』 第47卷 第3期, p.90.

32) 「奉天蒙古各旗交涉局候選道于駟興東三省總督奉天巡撫文」, “俄人翻譯波羅特...于三十二年九月十六日 自扎殺克圖王府至阜海家內, 告以哈爾濱新聞報現擬添出蒙文報紙, 以便蒙人流覽, 商諸阜海往充翻譯, 阜海未就”. 內蒙古大學政治歷史係(1975), 『沙俄侵華史料初編』, 打字油印本 38쪽(武莫勒, 앞의 논문, p.67에서 재인용).

이산이 1906년경 <몽골신문> 발간의 논의 과정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원칙적으로 통설을 부정하면서도 일부를 수용하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애매한 입장이다. 그러나 각주 설명을 통하여 언급했듯이 하이산은 1907년 말 후레에서 내몽골로 돌아온 뒤 1909년 다시 후레로 떠날 때까지 하얼빈에 있었다. 따라서 체류 시기를 근거로 한 그의 입론은 반은 맞고 반은 성립되기 어렵다.

<몽골신문>과 본고의 주제를 다른 또 다른 내몽골 연구자는 보르지긴 부렌이다.³³⁾ 그 역시 <몽골신문>의 발행 배경에서 역사적 의미에 이르기까지 본지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폭넓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해 신문의 편집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루었다. 그는 하얼빈 주재 일본영사관 보고서의 <몽골신문> 주필과 기자 명단에 하이산의 이름이 없지만 기획 단계와 창간 초기에 그가 본지의 편집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았다. 자신의 주장에 대해 부렌은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하르빈에서 몇 년 전에 첫번째 몽고 말 신문을 출판했다”³⁴⁾는 람스테트의 전언이다. 이 전언은 1909년 말 하이산이 람스테트에게 한 말인데, 그가 나중에 이를 자신의 여행기에 옮겨 놓은 것이다. 부렌은 <몽골신문>이 1909년 5월에 발행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몇 년 전에”³⁵⁾ 하이산이 신문 발행에 참여했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그는 이를 준비 단계까지 포함시켜 한 말일 것으로 이해하였다. 람스테트의 전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렌의 주장은 투무르의 생각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둘째는 하이산이 후레에 온 시기(1907)와 <몽골신문>의 창간 시기(1909)의 차이를 들어 그의 편집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기왕의 연구에 대한 비판이다. 부렌은 하이산 관련 회고록을 남긴 나왕남질(G. Navannamjil)의 증

33) 볼즈긴布伦(布日額), 앞의 논문.

34) 게.이. 람스테트 지음, 앞의 책, 203쪽.

35) 일본어 번역본을 인용한 결과이겠지만 부렌은 이를 “數年間”으로 쓰고 있다. 핀란드어 원문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지만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

언³⁶⁾을 인용하면서, 그가 1907년 同鄉人 알마스-오치르와 함께 후레에 와서 몽골의 독립을 논의하고 내몽골로 돌아갔다가 1909년 다시 후레에 왔기 때문에, 시기적 차이에 근거한 일부 학자들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이산이 1907년에 후레에 왔다가 내몽골로 돌아갔다는 것은 당시 다른 자료³⁷⁾에 의해서도 확인됨으로 그의 이런 주장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부렌이 주장하는 세 번째 근거는 <몽골신문>(제9호, 1909년 10월 26일)³⁸⁾의 기사 내용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그가 번역하여 인용한 기사 전체를 다시 인용한다.

외대로 나간 하이산과 알마스-오치르 등의 생각으로는, 우리는 旗에서 政務를 처리했지만 王³⁹⁾ 및 부인과 생각이 맞지 않아 도망쳐 나왔다. 바라는 것은 왕이 원래 생각했던 것을 실현하기를 희망할 뿐이다. 지금까지 먼 곳을 떠돌며 구걸을 하면서도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인내하면서 타개책을 찾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 가도 三寶에 구원받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지지받고 또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중략) 하이산과 알마스-오치르는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도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사태를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는데, 보안빌릭투⁴⁰⁾ 등이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당해 관청에서 몽골어 신문을 발행하여 여러 가지로 중상 비방하였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일의 상세한 사연을 찾아 적어냄으로써 그들이 선량한 사람에게 씩은 부당한 죄를 벗기려고 한다.⁴¹⁾(몽골어 원문과 대조하여 일부를 수정함)

36) Г. Навааннамжил, 앞의 자료, p.1.

37) М. Масаржав/Эрхлэн хэвлүүлэн З. Лонжид, О. Батсайхан, 앞의 책, pp.17-18.; О. Батсайхан Эмхэтгэж хэвлэлд бэлтгэсэн(2013), *Монголын түүхийн эх сурвалж(1911-1921)*, Улаанбаатар: ШУА, Олон улс судлалын хүрээлэн, pp.44-50.

38) 본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몽골신문> 스캔본과 기타 관련 자료를 제공해준 昭和女子大学の 후호마타르 교수와 北海道大学の 보르지긴 부렌 연구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

39) 喀拉沁右旗 자삭(Jasay) 군센노르보(Günsennorbu, 1872-1931)이다. 한어로는 貢桑諾爾布으로 통칭 貢王이라 한다.

40) 보안빌릭투(Buyanbiligtü)는 하르친우기의 管旗長京을 역임한 汪國均(1853-1921)이다. 그가 남긴 회고록(『蒙古紀聞』)은 근대 내몽골 동부 상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41) ボルジギンブレン(布日額), 앞의 논문, 45쪽. 원문[Mongyul-un sonin bičig No.9(1909. 10. 26), pp.50-53]과 대조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부렌은 인용문에 하이산과 알마스-오치르가 “왕 및 부인과 생각이 맞지 않아 도망쳐 나왔다”, “바라는 것은 왕이 원래 생각했던 것을 실현하기를 희망할 뿐이다”, “왕에게害를 끼치지 않으려고 인내하면서 타개책을 찾고 있다” 등 본인들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개인적인 내용이 있다는 데 주목한다. 그는 또한 인용문 末尾에서 보듯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적극 옹호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을 근거로 부렌은 상기 <몽골신문> 제9호의 기사를 하이산과 알마스-오치르가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몽골신문>이 창간되는 1909년 5월부터 하이산이 후레에 도착하는 그해 12월까지 당해 신문의 발행에 관여한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결론지었다.

<몽골신문>에는 편집인이나 기사 작성자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인용문만 갖고 두 사람이 이 기사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기 기사에는 작성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하이산과 알마스-오치르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하얼빈 주제 일본영사관 보고서의 기록, 즉 <몽골신문>을 창간할 때 알마스-오치르를 주필, 2명의 하르친 사람을 기자로 초빙했다⁴²⁾는 기록이 사실이라면 하이산이 본지의 편집이나 발행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하이산이 <몽골신문>의 제작에 참여했다고 본 부렌의 결론은 받아들일 만하다. 물론 부렌은 영사관 보고서에 나오는 하르친 사람 기자를 “하르친 족 副主筆”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이산이 두 번째 후레에 간 시기를 1909년 12월로 못 박는 등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도 하고 있지만, 하이산과 <몽골신문>의 관계에 대한 그의 결론은 설득력이 있다.

내몽골 출신 학자 중 <몽골신문>을 가장 폭넓게 연구한 학자는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흐바타르이다. 그는 <몽골신문> 뿐 아니라 근대 중국 領內

42) “喀拉沁旗ノ蒙人ニシテ漢、滿語二通ゼル阿爾木薩鄂齊尔(漢名趙壽彭四十六年)ヲ聘セテ主筆トシ外二名ノ喀拉沁旗人ヲ記者トシ(下略)”. 「哈爾賓發行蒙古新聞二関スル件」(大正 3年 8月 17日, p.2.

몽골어 정기 간행물과 하이산이 編譯한 『蒙漢合璧五方元音』에 대한 논문⁴³⁾을 발표하는 등 이 분야 대표적인 학자이다. 특히 201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그는 하얼빈 주재 일본영사관 보고서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몽골, 내몽골, 일본, 러시아, 미국 등지에 흩어져 있는 〈몽골신문〉의 소장 상황을 일일이 소개하고, 하이산과 〈몽골신문〉의 편집인 문제, 〈몽골신문〉에 대한 평가와 발행 목적 등을 광범위하게 분석하였다.⁴⁴⁾ 그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하이산과 〈몽골신문〉의 편집인 관련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이다.

그는 이미 2011년 논문에서도 몇 가지 근거를 대면서 “하이산이 편집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⁴⁵⁾ 이어 2015년 논문에서 그는 이 문제를 좀 더 상세하게 다루었는데 그 대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흐바타르는 먼저 〈몽골신문〉의 발행과 편집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하얼빈 주재 일본영사관 보고서, 그 당시 후레에서 하이산과 만나고 기록을 남긴 러시아 외교관 코로스토베츠(I. Ya. Korostovets)의 저술과 일기⁴⁶⁾ 등 당대에 생산된 자료 어디에도 그가 본지의 편집인이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하이산이 “하르빈에서 몇 년 전에 첫번째 몽고 말 신문을 출판했다”는 랍스테트의 증언을 귀중한 자료라고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이 처음 후레에서 만난 시기(1909), 〈몽골신문〉의 창간 시기(1909), 하이산이 처음 후레에 도착한 시기(1907) 등의 차이를 근거로 그의 편집 참여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즉 그는 하이산이 1907년에 후레에 왔고 〈몽골신문〉이 1909년에 창간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처음 만난 1909년 시점

43) フフバートル(2011), 「モンゴル語の近代語彙と辞書(一)―海山編訳『蒙漢合璧五方元音』(1917)―」, 『学苑』 No.845.

44) フフバートル, 앞의 2015년 논문.

45) フフバートル, 위의 2011년 논문, p.126.

46) 코로스토비에츠著, 高山洋吉譯(1943), 『蒙古近世史』, 東京: 森北書店.; И.Я. Коростовец(2010), *Монголд өнгөрүүлсэн есөн сард*(Монгол дахь Оросын Бүрэн эрхт төлөөлөгчийн өдрийн тэмдэглэл) 1912 оны 8-р сараас 1913 оны 5-р сар, Орос хэлгээс орчуулсан Чойнзонгийн Баатар, Эмхэтгэгч Оохнойн Батсайхан, Улаанбаатар.

에서 “몇 년전에” 편집 일을 했다는 전언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후흐바타르는 하이산이 1907년과 1909년 두 번에 걸쳐 후레에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램스테트의 증언 속의 “몇 년 전”을 <몽골신문>의 기획 단계부터 고려한 말로 해석한 투무르와 부렌의 견해도 배제하고 있다.

후흐바타르는 이어 하이산이 <몽골신문>의 편집인으로 일했다고 보는 부렌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요지는 부렌이 자기주장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상기한 <몽골신문>(제9호, 1909년 10월 26일)의 기사는 하이산이 편집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그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는 기사의 순수성에 대한 의심이다. 그는 당해 기사가 알마스-오치르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하르친우기의 또 다른 관리인 보안빌릭투와 그의 부친 출로(Čulu)를 증상 비방한 기사(<몽골신문>, 제8호, 1909년 8월 28일)⁴⁷⁾의 후반부로 두 사람의 “逃亡”에 대한 설명 또는 변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몽골신문>(제9호)의 기사에 나온 대로 알마스-오치르가 하르친우기의 王 및 王妃와의 갈등 때문에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처벌을 두려워하여 외지로 도주했다는 후대 학자들의 연구⁴⁸⁾를 인용하고 있다. <몽골신문>의 두 기사 모두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두 번째 이유는 어떻게 보아도 앞서 인용한 <몽골신문> 제9호 기사는 하이산이 집필에 가담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정치적으로 하이산과 같은 입장에 있었던 편집인 알마스-오치르가 단독으로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

47) 「탐욕스런 변절자, 열등한 노예는 수치를 모른다(Qobduy jalaqai douradu boyul-un niyur abqu ügei)」, *Mongyul-un sonin bi Čig* No.8, pp.39-43.

48) 吳恩和·刑復禮(1988), 「喀喇沁親王貢桑諾爾布」, 『內蒙古文史資料』第三十二輯, pp.10-11.; 汪國鈞著, 瑪希·徐世明 校主(2006), 『蒙古紀聞』,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p.11.

후흐바타르가 제시한 첫 번째 반박은 설득력이 약하다. 알마스-오치르가 고향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다르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몽골신문〉의 기사대로 하르친우기 왕의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학자⁴⁹⁾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설사 그가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고향을 떠났고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그 기사를 썼다고 해도 이는 하이산의 편집 참여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그가 제시한 두 번째 반박은 액면 그대로 보면 맞다. 그 기사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 하이산이 당해 기사를 쓰거나 편집했다는 말은 없다. 그러나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몽골신문〉 제9호 기사는 일관되게 두 사람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고, 사실상 두 사람을 위한 기사인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글에 편집인인 알마스-오치르의 의지가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그와 더불어 타향에서 거주하고 후례에 가서 민족의 독립을 역설하는 등 고락을 함께 한 하이산이 해당 기사의 집필이나 편집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거듭되는 말이지만 창간 때 하르친우기의 알마스-오치르가 주필을 맡고 하르친우기 출신의 2명의 기자가 있었다는 하얼빈 주재 일본영사관 보고서에 나오는 2명의 기자 중 한 사람을 하이산으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

4. 맺음말

필자는 지금까지 19세기 말-20세기 초기에 활동한 몽골 민족운동가 하이산의 〈몽골신문〉 편집 또는 발행 관여 여부에 대한 기왕의 연구결과를 검토해보았다. 구체적으로 1960년대 텔렉 교수의 연구를 비롯한 몽골국 학자들

49) 볼지겐布伦(布日額)(2014), 「アルマスオチルの活動と思想 清朝末期におけるモンゴル独立運動と知識人」(日本モンゴル学会 2014年春季大会発表レジュメ).

과 후흐바타르를 비롯한 내몽골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에서 검토한 어느 누구도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한 수긍할만한 결론을 내놓지는 못하였다. 사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 중 하이산과 <몽골신문>의 관련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람스테트의 증언이 유일하다. 람스테트가 1909년 하이산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그의 여행기에 옮겨 놓은 것이다. <몽골신문>의 편집과 발행 및 기자에 대하여 가장 상세한 정보를 남긴 하얼빈 주재 일본영사관 보고서에는 주필로 알마스-오치르만 언급될 뿐 하이산의 이름은 아예 없다. 물론 방금 전 언급한 것처럼 창간 초기에 알마스-오치르와 함께 일한 2명의 하르친 기자 중 한 사람이 하이산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를 그가 <몽골신문> 발행에 관여한 결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몽골신문>(제9호, 1909년 10월 26일)의 기사 작성에도 하이산이 영향을 마쳤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역시 그가 <몽골신문> 발행에 관여했다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좀 더 다른 자료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앞서 언급한 러시아 자료이다.

부랴트몽골 출신의 민족지학자인 치비코프(G.Ts. Tsybikov, 1873-1930)가 남긴 <1909년 중국 여행일지(Dnevnik poezdki v Kitai v 1909 g.)>에는 “하얼빈의 몽골신문(Kharbinskaya Mongol'skaya gazeta)” 얘기가 나온다. 이 “하얼빈의 몽골신문”은 우리의 주제인 <몽골신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필자가 지금까지 확인한 <몽골신문>에 관한 최초의 정보이다. 그러나 치비코프는 당해 신문의 번역과 몽골어 정서법상의 오류를 지적할 뿐 편집 등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⁵⁰ 한편 수십 년 동안 몽골에서 살면서 20세기 초기 몽골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은 러시아 학자 부르두코프(A.V. Burdukov, 1883-1943)도 하이산과 <몽골신문>에 대한 기

50) Г.Ц. Цыбиков(1981),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Том второй, Новосибир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Сибирское отделение, p.118.

록을 남긴 사람 중 하나이다. 그는 1912년 여름 몽골 신정부군의 호브드(Khovd) 해방 전쟁에 참여한 하이산을 만난 적이 있고, 이를 당시 호브드 상황과 아울러 그 해 말 한 신문에 기고하였다.⁵¹⁾ 추에츠(A. Chuets)라는 필명으로 기고한 당해 기사에는 하이산과 그의 활동이 꽤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몽골신문〉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후 그가 러시아로 돌아간 후 남긴 회고록에는 호브드 전쟁 당시 호브드 및 주변 상황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몽골신문〉 및 편집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다.

하이산 公은 나이가 쉰 살 남짓이고, 키가 크고, 잿빛 머리에 중국인 얼굴(모습을) 하고 있었다. 동몽골 사투리로 말하기 때문에 내가 겨우 이해하였다. 그 사람은 단지 戰士라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몽골 독립을 위한 전임 투쟁가라는 점에서, 그 당시 몽골의 유일한 신문으로 東滿철도 관리국(지원 하에) 하얼빈에서 발행된 〈몽골신문〉의 편집인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나에게 흥미로운(사람)이었다.⁵²⁾(괄호 안 필자 부기)

부르두코프가 정확히 언제 하이산을 만났는지를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호브드 해방 전투⁵³⁾가 1912년 5월에 시작되어 8월에 끝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두 사람의 조우가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아무튼 부르두코프 입장에서는 하이산이 여러 측면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해 말 신문 기고문을 통하여 그를 소개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관심사인 회고록을 그가 언제 집필했는가 하는 것이다. 본서는 그가 사망하고 25년이 지난 1968년에 공간되었다. 서문을 쓴 즐라트킨(I. Ya. Zlatkin)에 따르면 당시 레닌그라드에 거주하던 그의 유족이 소장하고 있던

51) A. Чуець, “По независимой Монголии”, *Сибирская жизнь* No.272, суббота 8-го декабря года, 1912.

52) A.В. Бурдуков(1969), *В старой и новой Монголии*, Москва: Наука, p.87.

53) 이평래(2008), 「1911년 몽골 독립과 민족 통합 운동의 초기 과정」, 『동양사학연구』 104, 184-185쪽.

원고를 저본으로 하고 거의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채 출판했다⁵⁴⁾고 하는데 이것만 갖고는 집필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가 사망하기 직전에 썼다고 해도 시점이 1943년 이전이므로, 부르두코프의 회고록은 람스테트의 증언까지를 포함시켜 봐도 현재까지 확인된 하이산과 〈몽골신문〉의 관련성을 직접 언급한 최초의 자료가 된다.

그 때문인지 그 후에 출간된 러시아 자료에는 하이산이 의문의 여지가 없이 〈몽골신문〉의 편집인으로 언급된다. 예컨대 1968년 부르두코프의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본서에 주석을 붙인 다레브스카야(E.M. Darevskaya)는 하이산 공에 대한 설명에서 “몽골 독립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가, 1909년 말(5월) 러시아인들이 하얼빈에서 몽골어로 〈몽골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할 때 하이산 공이 그것의 발행인들 중 한 (사람)이었다”(괄호 안 필자 부기)⁵⁵⁾라고 하였다. 또한 1981년 상기한 치비코프의 저작집을 발간하면서 그의 〈1909년 중국 여행일지〉에 주석을 붙인 도가르니마예프(Ts.A. Dogarnimaev)도 시렌테브와 텔렉 등 몽골학자들까지 인용하면서 하이산을 〈몽골신문〉의 편집인이라고 적었다.⁵⁶⁾ 그 후 러시아 학자의 연구서나 교육용 서적⁵⁷⁾에는 이것이 사실상 통설로 언급되고 있다. 참고로 근년 하이산의 『蒙漢合璧五方元音』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중국 연구자⁵⁸⁾ 역시 그를 그 신문의 편집인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하이산이 〈몽골신문〉 발행에 관여했다는 람스테트의 증언은 사실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다. 람스테트처럼 당시 몽골에서 하이산을 직접 만난 부르두코프도 그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이 점을 특기하고 있으니 사실 자체를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

54) A.B. Бурдуков, 위의 책, pp.5-6.

55) A.B. Бурдуков, 위의 책, pp.381-382.

56) Г.Ц. Цыбиков, 앞의 책, p.213.

57) E.A. Белов(1999), Россия и Монголия(1915-1919 гг.), Москва: ИВ РАН, p.195.; E. И. Лиштованный (2001), Монголия в истории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XVII-начало XX вв.), Иркутск: ИГУ, p.88.

58) 李貴連(2018), 「海山及其《蒙漢合璧五方元音》研究」, 『長春大學學報』第28卷 第11期.

다면 서문에서 제기한 본고의 핵심 문제는 일단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그가 〈몽골신문〉 발행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가에 대한 것은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다. 이 문제는 서문에서 말한대로 하이산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로 알려진 하얼빈에서의 활동에 대한 향후 연구를 통하여 밝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1차자료

- 계.이. 람스테트 지음, 고승무 뒤침(1986), 『일곱 차례 동방 여행』, 서울: 민음사.
 內蒙古大學政治歷史係(1975), 『沙俄侵華史料初編』, 打字油印本.
 汪國鈞 著, 瑪希·徐世明 校主(2006), 『蒙古紀聞』,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コロストヴィエツ著, 高山洋吉譯(1943), 『蒙古近世史』, 東京: 森北書店.
 「哈爾賓發行蒙古新聞二閱スル件」(大正 3年 8月 17日, 哈爾賓總領事代理領事官補 川越, 外務大臣男爵加藤高明宛(外務省外交史料館),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レファレンスコード BO3040837700).
- Батсайхан, О. Эмхэтгэж хэвлэлд бэлтгэсэн(2013), *Монголын түүхийн эх сурьалж(1911-1921)*, Улаанбаатар: ШУА, Олон улс судлалын хүрээлэн.
- Масаржав, М./Эрхлэн хэвлүүлсэн Лонжид, З., Батсайхан, О.(2015), *Монгол улсын шинэ түүх*,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Принтийнг.
- Mongγul-un sonin bičig* No.8(1909. 8. 28).
- Mongγul-un sonin bičig* No.9(1909. 10. 26)
- Навааннамжил, Г.(연도미상), *Giin Qayisan -u tuqai*, ШУА-ын Түүхийн хүрээлэнгийн гар бичмэлийн сан Ф-3, Д-1, ХН-1036.
- Саруул-Эрдэнэ, М., Урангуа, Ж..(2017), *Рамстедтын захидал бичиг*, Улаанбаатар: Сэлэн гэпрэсс.
- Бурдуков, А.В.(1969), *В старой и новой Монголии*, Москва: Наука.
- Коростовец, И.Я.(2010), *Монголд өнгөрүүлсэн есөн сар*(Монгол дахь Оросын Бүрэн эрхт төлөөлөгчийн өдрийн тэмдэглэл) 1912 оны 8-р сараас 1913 оны 5-р сар, Орос хэлнээс орчуулсан Чойнзонгийн Баатар, Эмхэтгэгч Оохнойн Батсайхан, Улаанбаатар.

Чуецъ, А., “По независимой Монголии”, *Сибирская жизнь* No.272, суббота 8-го декабря года, 1912.

Цыбыков, Г.Ц.(1981),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Том второй, Новосибир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Сибирское отделение.

2. 2차 자료

김장구(2006), 「람스테트(G.J. Ramstedt)의 유목민족사 이해와 그 한계－『위구르 민족의 간략한 역사』의 전사와 번역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연구』 11.

이평래(2008), 「1911년 몽골 독립과 민족 통합 운동의 초기 과정」, 『동양사학연구』 104.

_____(2011), 「1911년 몽골 독립과 하이산」, 『대동문화연구』 75.

정재훈(2005), 『위구르 유목제국사 744-840』, 서울: 문학과 지성사.

樊明方(2005), 「海山與1911年外蒙古獨立」, 『中國邊疆史地研究』 第15卷 第4期.

吳恩和・刑復礼(1988), 「喀喇沁親王貢桑諾爾布」, 『內蒙古文史資料』 第三十二輯.

李貴連(2018), 「海山及其《蒙漢合璧五方元音》研究」, 『長春大學學報』 第28卷 第11期.

郭宇春(2020), 「淺談俄羅斯文化在中東鐵路沿線的傳播」, 『西伯利亞研究』 第47卷 第3期.

忒莫勒(2009), 「關於清末民初哈爾濱的『蒙古新聞』」, 『內蒙古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8卷 第3期.

____ 編著(2010), 『內蒙古日報刊考錄 1905-1949. 9』, 呼和浩特: 遠方出版社.

ボルジギンブレン(布日額)(2012), 「『モンゴリンソニンビチグ』(1909-1919)の発行状況と論調－近代モンゴルの活字メディアとナショナリズムの萌芽－」, 『内陸アジア史研究』 第27號.

_____(布日額)(2014), 「アルマスオチルの活動と思想 清朝末期におけるモンゴル独立運動と知識人」(日本モンゴル学会 2014年春季大会発表レジュメ).

中見立夫(1976), 「ハイサンとオタイ-ボグド・ハン政権における南モンゴル人」, 『東洋學報』 57(1・2).

フフバートル(1995), 「モンゴル語定期刊行物史にみる言語問題——モンゴル語發展史及び内モンゴル言語問題の一端」(一橋大学大学院社会学研究科 博士課程後期単位修得論文).

_____(2007), 「中國領内発行のモンゴル語定期刊行物－モンゴル語定期刊行の所蔵と研究の状況－」, 『学苑』 №. 799.

_____(2011), 「モンゴル語の近代語彙と辞書(一)－海山編訳 『蒙漢合璧五方元音』(1917)－」, 『学苑』 No.845.

_____(2015), 「Mongγul-un sonin bičig(1909-1918)というモンゴル語定期刊行物－モンゴル語定期刊行物史における位置づけと所蔵状況－」, 『学苑』 №.892.

Батсайхан, О., Лонжид, З., Баатар, С., Амарсанаа, С.(2018), *Монголын түүх1911-2017*,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Принтийнг.

- Болд, Л.(1990), *БНМАУ-ын нутаг дахь хадны бичээс(Түрэг бичгийн дурсгал)*, Улаанбаатар: Улсы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 Дэлэг, Г.(1965), *Монгол тогтмол хэвлэлийн түүхэн тэмдэглэл*, Улаанбаатар: Улсын хэвлэлийн эрхлэх хороо.
- Жамсран, Л.(1992), *Монголын сэргэн мандалтын эхэн(1911-1913)*,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 ОДМАНДАХ, М.: ХЭДИЙ БҮХ ЗҮЙЛ ОНЛАЙН БОЛЖ БАЙГАА Ч ХАМГИЙН БОДИТОЙ ЭХ СУРВАЛЖ БОЛ ХЭВЛЭМЭЛ ХУУДАС БАЙНА(2020. 5. 20), <https://gereg.mn/news/53278>(2021. 1. 9 검색).

- Белов, Е.А.(1999), *Россия и Монголия(1915-1919 гг.)*, Москва: ИВ РАН.
- Kamalov, Ablet(2003), “The Moghon Shine Usu Inscription as the Earliest Uighur Historical Annals”, *Central Asiatic Journal* Vol. 47, No. 1.
- Лишгованный, Е. И.(2001), *Монголия в Истории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XVII-начало XX вв.)*, Иркутск: ИГУ.
- Ширендеб, Б.(1963), *Монголия на рубеже XIX-XX веков(История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Улан-Батор: Комитет по делам печати.

- Aalto, Pentti(1973), G.J, Ramstedt and Mongoli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a Mongolica* Tom 1(9) Fasc.1-17.
- Kamalov, Ablet(2003), “The Moghon Shine Usu Inscription as the Earliest Uighur Historical Annals”, *Central Asiatic Journal* Vol. 47, No. 1.

E-mail: mongollee@naver.com

접수일: 2021년 1월 27일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일: 2021년 2월 1일 ~ 2021년 2월 7일
 게재 결정일: 2021년 2월 8일

www.kci.go.kr

Abstract

Khaisan and Mongolian Newspaper

Lee, Pyungrae*

Gustaf John Ramstedt(1873-1950), a prominent Finnish linguist, visited Mongolia three times in total. When he came to Mongolia for the second time in 1909, he met Khaisan, a national activist from Inner Mongolia. His travel notes, published decades later, described in considerable detail the meeting with Khaisan in 1909. One of them is that Khaisan was involved in the publication of the Mongolian Newspaper(Mongγul-un sonin bičig), which was founded in Harbin in 1909. The basis for this is not clear, but from the early 1960s some Mongolian scholars have suggested that Khaisan served as editor of Mongolian Newspaper. Since then, Mongolian and foreign scholars have accepted this opinion with little doubt. Recently, however, some researchers have raised strong questions about this opinion based on the lack of data. Therefore, I examined whether Khaisan was really involved in the editing or publishing of Mongolian Newspaper, focusing on the research of scholars.

Specifically, we looked at the research results of Mongolian scholars, including Deleg's research in the 1960s, and Inner Mongolian scholars including Khökhbaatar's research one by one. However, none of the existing researchers came up with a convincing conclusion to my question. The biggest reason is the lack of relevant data. In fact, Ramstedt's testimony is the only one that directly men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Khaisan and the Mongolian newspaper. As several scholars have mentioned, Khaisan's name is not in the report of the Japanese Consulate in Harbin, which left the most detailed information on the editing, publication, and journalists of the Mongolian newspaper. So what I have noticed is Russian data. Among them, the most interesting material I looked at was the memoirs of Russian scholar A.V.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Central A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urdukov(1883-1943) who witnessed the situation in Mongolia in the early 20th century while staying for a long time in western Mongolia.

Burdukov met Khaisan in the summer of 1912 who participated in the Mongolian New Government Army's Khovd Liberation Battle. In his newspaper contributions and later memoirs, he details his meeting with Khaisan and the situation in Khovd. One of them is information that Khaisan was the editor of the Mongolian newspaper. This information, including Ramstedt's testimony, is the first to directly men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Khaisan and the Mongolian Newspaper. The author concluded that it was true that Khaisan was involved in the publication of the Mongolian newspaper based on the research of previous scholars and the data provided by Burdukov et al. Of course, nothing has been revealed about how he was specifically involved in the publication of the Mongolian newspaper. This issue will have to be elucidated through future studies of Khaisan's activities in Harbin, known as the darkest period of life.

Key words: 몽골신문(Mongolian Newspaper), 하이산(Khaisan), 램스테트(Ramstedt), 시렌 데브(Shirendev), 델렉(Deleg), 투무르(Tömör), 후흐바타르(Khökhbaatar), 보르지긴 부렌(Borjigin Büren), 하얼빈(Harbin), 부르두코프(Burdukov), 동청철도(Chinese Eastern Railway)

